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왼쪽)과 전인지가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내셔널골프장에서 개막하는 US여자오픈을 앞두고 우승에 대한 비장함을 엿보였다. 유소연은 2011년, 전인지는 2015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직행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 PGA of America·AP뉴시스



여자프로농구 감독들이 12일 진천선수촌을 찾아 여자농구대표팀과 명지대의 연습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KEB하나은행 이환우, 우리은행 위성우, KB스타즈 안덕수, 삼성생명 임근배, 신한은행 신기성 감독. 사진제공 | WKBL

여자농구대표팀 응원 진천으로 모인 감독들

여자 아시아컵 앞서 훈련 현장 방문
임근배 감독 “희식비는 우리가 쓴다”

여자프로농구 감독들이 12일 진천선수촌에 모였다. 팀 일정상 태백에 머물고 있는 KDB생명 김영주(49) 감독을 제외한 5개 구단 감독들은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아시아컵에 앞서 소집훈련을 진행 중인 여자농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단체로 진천선수촌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대표팀과 저학년 위주로 구성된 명지대의 연습경기를 관전했다. 대표팀의 경기력도 살펴보고, 대표팀 합류로 오랫동안 못 본 소속팀 선수들의 몸 상태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 연습경기 후에는 대표팀 선수단과 저녁식사로 함께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성생명 임근배(50) 감독은 “10일 외국 인선수 드레프트 행사 직전에 6개 구단 감독들이 따로 자리를 가졌는데, 다수의 감독들이 응원차 대표팀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 기왕이면 같이 가서 힘을 불어넣어주자고 했다. 각 팀의 일정이 있어 모이기 쉽지 않은데,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움직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단 희식비용은 감독들이 각축해서 마련했다. 남은 기간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길 6개 구단 감독들이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컵은 23일 인도 방갈로르에서 개막한다. 한국은 B조에 속해 호주, 일본, 필리핀과 조별리그를 치른다. 조별리그에서 탈락은 없다.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 8강 토너먼트 대진이 결정된다. 이번 대회 준결승에 오른 4팀은 내년 스페인에서 열리는 여자농구월드컵 본선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4강을 넘어 결승 진출을 목표로 삼은 대표팀은 20일 인도로 출국한다.

최홍석 기자 ghyong@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유소연·전인지 동상이몽 “US오픈 제패 한번 더”

LPGA US여자오픈 오늘 티샷

각각 2011·2015년 대회 우승 좋은 기억
유소연 “긴 코스·긴 러프, 인내심 중요해”
전인지 “메이저 우승에 내 모든 기술 동원”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과 전인지(23)에게 US여자오픈(총상금 500만달러·우승상금 90만달러)은 좀더 특별하다. 유소연과 전인지 모두 이 대회 우승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직행에 성공했다. 유소연은 2011년, 전인지는 2015년 우승했다.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내셔널골프장(파72)에서 개막하는 올해 대회를 앞두고 유소연과 전인지는 남다른 다짐

을 보였다. 지난달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유소연은 “1위가 되고 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끔찍했던 일이라 즐겁기도 하다”며 “2011년 US여자오픈 우승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당시에는 우승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LPGA 투어에서 뛰다보니 US여자오픈의 우승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됐다. 다시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소연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2008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US여자오픈 우승을 달성한 박인비(29)와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내셔널골프장을 찾아 라운드를 하며 대비해왔다. 10일 다시 18홀을 돌아본 유소연은 “코스가 길고 러프도 길다. 페어웨이를 놓치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림은 크고 어렵다. 그만큼 아이언 샷을 잘해야 한다. 미국골프협회(USGA)가 선수들에게 완벽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인지도 비장함을 감추지 않았다. 2015년 US여자오픈, 지난해 또 다른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며 LPGA 투어에서 거둔 2승을 모두 메이저로 장식했다. 우승 숫자는 적지만 메이저대회에 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전인지는 “프로 데뷔 이후 통산 13승(LPGA 투어 2승 포함)을 거뒀는데, 그 중 7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뒀다”고 자신감을 보인 뒤 “올해 준우승만 4번했다. 분명 좋은 성적이지만, 우승에 목이 마르다.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큰 우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8번

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다짐했다. 또 “메이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며 “그게 나의 장점이기에 올해도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US여자오픈 개막을 앞두고 외국 베테랑 체들은 렉시 톰슨(미국)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했다. 베테랑체 BET35는 유소연과 톰슨을 가장 높은 순위에 올려놓았지만, 스카이BET과 위너는 톰슨을 우승 후보로 찍었다. 톰슨은 4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을 다졌다. 톰슨이 발타를 받는 바람에 유소연이 역전우승을 차지했다. 톰슨과 유소연에 이어 박인비, 양희영(28), 박성현(24),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등이 우승 후보로 언급됐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박인비 vs 리디아 고 vs 평산산...리우 메달리스트들 리턴매치

US여자오픈 흥미로운 조편성 화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여자오픈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US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해마다 흥미로운 조편성을 해 팬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13일(한국시간)부터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내셔널골프장에서 막을 올리는 US여자오픈 1라운드에서도 빅매치가 만들어졌다.

먼저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과 2위

아리아 푸타누간(태국), 그리고 여자골프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 레오나 맥과이어(아일랜드)가 한 조로 묶여 흥미를 돋우고 있다. 유소연은 6월 NW아칸소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째를 따내며 앞서 2주간 세계랭킹 1위를 지켜온 푸타누간을 끌어내리고 여왕 자리에 올랐다.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치열한 샷 대결이 예상된다. 13일 오후 8시29분 티오프한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여자골프 금

·은·동메달을 나눈 메달리스트의 재대결도 성사됐다. 금메달을 획득했던 박인비와 리디아 고(은메달·뉴질랜드), 평산산(동메달·중국)이 오후 8시19분 경기를 시작한다.

USGA가 주관하는 챔피언십 우승자들도 함께 경기한다. 오후 8시40분부터 10번홀에선 2015년 US여자오픈 우승자 전인지(23)와 2016년 우승자 브리타니 랭(미국), 2016년 US여자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 성은정(18)이 1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LPGA 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들도 한 조로 묶여놓았다. 재미동포 미셸 위와 브리타니 린시컴(미국),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같이 라운드를 펼쳐며 화려한 공격골프의 진수를 보여줄 전망이다. 14일 오전 0시52분 시작된다.

이밖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렉시 톰슨, 스테이시 루이스(이상 미국),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함께 경기(오후 8시7분)하고, 박성현(24)은 허미정(28), 크리스티 커(미국)와 함께 오후 8시29분 1번홀에서 티샷한다. 주영로 기자

100만 달러 향한 첫 번째 관문, 16인의 파이터들이 장충 달군다

ROAD TO A-SOL 16강전 15일 개막

자브로프 vs 쿤츠 챔피언 출신 빅매치
남의철, TKO패 안긴 산토스와 재대결
퓨리아 vs 난딘에르텐 타격전도 주목

ROAD FC ROAD FIGHTING CHAMPIONSHIP 7월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ROAD FC 040’에서 100만 달러 토너먼트 ‘ROAD TO A-SOL’의 16강 토너먼트가 펼쳐진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치열한 예선을 뚫고 꿈의 본선에 합류한 16명은 9개 나라의 종합격투기 선수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현직 챔피언 출신은 10명이다. 조국과 자신이 속한 단체를 대표해서 이들은 외나무다리 대결에 나선다.

●**제1경기: 바오인창 vs 레드 로메로**
중국 지역예선에서 왕밍우를 꺾고 16강에 합류한 바오인창(23·XINDU MARTIAL ARTS CLUB)은 많은 복싱 및 무에타이 대회에서 입상한 타격전문가다. 10승 2패 1NC의 전적을 가지고 있다. 무에타이를 주무기로 하는 레드 로메로(30·BAMF MMA)도 타격전을 선호한다. 필리핀 URCC 챔피언 출신. URCC에서 치러진 동남아시아 지역예선에서 우승해 꿈의 무대에 합류했다.

●**제2경기: 사빌 자브로프 vs 레오 쿤츠**
챔피언끼리의 맞대결이다. 하비 누르마고메도의 사촌형으로 알려진 사빌 자브로프(33·



현 ROAD FC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솔(왼쪽에서 9번째)을 중심으로 100만 달러 토너먼트 16강전에 진출한 선수들과 상금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ROAD TO A-SOL’ 티저 이미지. 사진제공 | ROAD FC

AKHMAT FIGHT CLUB)는 러시아 M-1과 Octagon FS 챔피언 출신.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타격에 능하다. 2월 인터내셔널 예선 A조에서 김원기를 꺾고 본선에 합류했다. ‘한국계 혼혈 파이터’ 레오 쿤츠(34·아메리칸 탑 팀)는 미국 IMPACT FC와 CFX 챔피언 출신. 타격과 그라운드 능력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태권 파이터’ 홍영기에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제3경기: 김창현 vs 만수르 바르나위**
‘미스터 암바’ 김창현(33·팀매드)은 유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그라운드 기술을 앞세운다. 2월 ‘판크라스 챔피언’ 앤디 메인을 누르고 16강 티켓을 땀다. 만수르 바르나위(25·팀매그립/트

리스타집)는 러시아 M-1과 영국 BAMMA에서 라이트급 챔피언에 올랐다.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그라운드와 타격능력을 고루 갖춘 선수다. 4월에 기원빈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제4경기: 토니뉴 퓨리아 vs 난딘에르텐**
39전 33승 6패의 토니뉴 퓨리아(29·팻볼 브라더스는 브라질 BITETTI COMBAT 챔피언이다. 33승 가운데 절반 이상이 KO/TKO 혹은 서브미션 승리다. 화려한 경기를 좋아한다. 2월 이형석을 꺾고 16강에 합류했다. ‘몽골 복싱 국가대표’ 난딘에르텐(30·팀파이터)은 복싱선수 출신답게 강력한 타격으로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한다. 최근 바오인창, 기원빈, 박

원식, 브루노 미란다를 연달아 꺾고 4연승을 달리고 있다.

●**제5경기: 시모이시 코타 vs 박대성**
일본 지역예선을 통과한 시모이시 코타(30·BLOWS)는 슈토(SHOOTO), 판크라스, DEEP에서 활약했다. 그라운드 기술과 펀치력을 고루 갖췄다. ‘크레이지 독’ 박대성(24·팀뎁)은 ROAD FC 라이트급의 떠오르는 강자다. 유도과 레슬링을 활용한 그라운드 상황에 강하다. 2월 ‘주짓수 강자’ 호드리고 카포탈을 꺾으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제6경기: 호니스 토레스 vs 엘누르 아가예프**
호니스 토레스(31·NOVA UNIAO)는 39전

을 치르며 단 5번의 패배만 기록했을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 현재 9연승 중이다. 슈토 브라질, MMA 챔피언스 리그의 챔피언이다. 2월 에르메 트라오브를 꺾고 16강에 올랐다. 러시아 지역예선에서 우승한 엘누르 아가예프(27·MFP)는 13승 7패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묵직한 펀치와 탄탄한 그라운드 실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스타일이다.

●**제7경기: 톰 산토스 vs 남의철**
브라질 드래곤 파이트 챔피언 출신의 톰 산토스(33·BRAZILIANTHAI)와 ‘코리안 불도저’ 남의철(36·사내남격투기)이 본선에서 다시 격돌한다. 본선 티켓을 딴 라파엘 피지에프가 부상으로 도중하차한 자리를 남의철이 채우면서 재대결이 성사됐다. 톰 산토스는 4월 강력한 펀치 한방으로 남의철에게 생애 첫 TKO패를 안겼다. 이번이 아니었음을 이번에 증명하려고 한다. ROAD FC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 남의철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펼쳐진다.

●**제8경기: 사사키 신지 vs 구겐쿠 아마르투 브신**
일본단체 슈토 환태평양 챔피언 출신 사사키 신지(37·BURST)는 2016년 12월 챔피언 권아솔에게 도전했던 선수다. 인터내셔널 예선 A조에서 알버트 쉼을 누르고 16강에 합류했다. 구겐쿠 아마르투브신(32, SHIREN BEE LII)은 몽골 MGL-1 챔피언 출신. 중국 지역예선에서 호드리고 카포탈과 상리연투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